



**부안 변산다함께돌봄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부안군 아동들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19일 부안군 변산다함께돌봄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5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변산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2020년 경로당 일부를 리모델링해 설립된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방과 후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자재 고장이 잦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행은 낡은 캐비닛과 수납장을 전면 교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책상과 의자, 사물함, 칠판 컴퓨터 등 학습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은행 최준구 부행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둘러보고 지역 아동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임실소상공인연합회,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대환)는 지난 18일, 덕치면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실읍방방대(회장 김민수)와 덕치면 박미순 면장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노후된 주택의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배려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임실군소상공인연합회는 평소에도 집고쳐주기 봉사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장아인 미용봉사, 제35보병사단 장병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금동 지사협, 반찬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금동 휴먼시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 부녀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일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1인 가구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30가구를 위한 냉장고를 부탁해 반찬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요즘 가장 맛이 좋은 제철 봄동겉절이를 비롯해 도라지무침, 파리고추 멸치볶음, 달걀장 구운 김 등 입맛을 돋우는 5종의 반찬을 정성껏 조리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은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강효미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다란다 편의점, 뽕볶이 할매를 집필한 강효미 작가를 초청해 그림책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독서퀴즈,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제시민 15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 월요일까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수요일은 두배로 Day', '그림책 원화 전시', '북큐레이션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강원 '만금빌라', 신재효문학상 수상작**

**고창군, 시상식 열고 작가와의 대화 진행**

고창군이 지난 18일 동리국악당에서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이강원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문화예술단체, 독서동아리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상작으로는 이강원 작가의 장편소설 '만금빌라'가 선정됐다. 이강원 작가는 고창군 신림면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20년 장편소설 '아버지의 첫 노래'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소년의 강', '중경머리 없는 인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수상작 '만금빌라'는 전쟁과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현재는 땅을 파는 건축업자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인 아들의 갈등과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개인의 상처와 세대 간의 충돌을 통해 고창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수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이 벌써 제5회를 맞으며 문학인들에게 의미 있는 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은 물론 전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신재효문학상은 고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장편소설을 공모하는 문학상으로 현재 제6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을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는 숲... 부안군,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봄의 기운이 완연히 접어드는 길목에 부안군은 19일 제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부안 해돋이루 지방정원에서 실시했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는 숲'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군의회 부안군 산림조합, 일반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목 2,000본을 정성껏 심으며 숲이 주는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은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오늘 심은 수목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휴식처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잘 가꾸진 숲과 정원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안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되고 있어, 산불 예방과 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정 부안'의 녹색 지도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성진 기자



한편 부안군은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 방송 및 산림 인접 지역 8ha 폐쇄지역을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12ha 조림사업 및 150ha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성진 기자

**전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시설 찾아 봉사 실천**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가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19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신성안로원을 방문해 제조작업과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이어온 수형자 교정위원과 교도관 등 18명이 참여해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보라미 봉사단'은 안로원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시설 내·외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정위원과 교도관 수형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며 안로원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안로원 관계자는 "봉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환경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정성을 다해 도와주니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오랜 시간 교정시설 안에서 지내다 사회에 나와 뜻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안로원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출소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주교도소 윤순풍 소장은 "수형자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기르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리를 넘어, 수형자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모범 수형자들의 담장 밖으로 이어진 작은 나눔이 이들의 새로운 삶을 여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등, 영농폐기물 수거 나서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협고창군지부 선운농협 임직원 및 선운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참여해 공동면 무장기포지 일대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제4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사)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회장 최일천)는 19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기 순창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순창군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입학식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학장 인사, 순창군수 축사 및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군수는 "노인대학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평생학습의 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43기 순창군 노인대학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약 3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일반상식, 웃음치료, 노래교실, 건강체조,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건강관리협회 전북, 단체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임직원 단체헌혈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건협 전북지부는 지난 18일 원활한 혈액 수급과 보건 안전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등, 영농폐기물 수거 나서**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협고창군지부 선운농협 임직원 및 선운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참여해 공동면 무장기포지 일대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영농부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해리농협, 조합원 자녀 15명에 장학금 전달**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은 지난 17일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리농협은 자체 기준에 따라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배강현 학생을 비롯해 새롭게 출발하는 15명의 청년들에게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몰들여' 사업 3년차 추진 | '근아해어샵' 생명사랑 미용실 지정**

김제시는 자살예방 국가중점사업의 특화 프로그램인 '몰들여' 사업을 올해 3년차로 추진하며, 금산면에 위치한 '근아해어샵'을 생명사랑 미용실로 지정해 지역사회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고 밝혔다. '몰들여' 사업은 미용살이라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인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독거노인에게 외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4년부터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1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에는 백구면을 중심으로 집중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는 노인 자살이 전체 자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살피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미용실을 활용한 '집 밖 유동형 안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 인식교육과 1:1 무료 염색을 함께 진행하는 '몰들여 Day' 운영, △자살위험성 평가 및 상담 연계,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지속 상담 정신과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로 구성 되어 있다. 한편 김제시민의 자살예방상담 서비스 관련은 보건소(063-540-2716),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